

AI 피해 농가 애로 해결에 최선 다해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현대축산 류필선 기자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축통계 2014년 2/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국 오리 사육 가구 수는 549농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4분기 집계 979농가에 비해 44%가량 급감한 것으로, 전년에 비교해 볼 때 반 토막 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최대 사육지인 전남지역이 AI 때문에 입식이 금지된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종오리 사육농장까지 AI가 덮쳐 종오리 씨가 말랐고, 사육을 하려고해도 새끼오리를 구할 수 없어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많았던 탓도 크다.

AI로 직격탄을 맞은 오리산업이 위기를 딛고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리 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이자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마광하 지회장을 만났다.

기자 AI로 지난 한해는 오리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작년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인 전남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마광하 작년 1월 24일 해남 종오리 농장에서 전남지역 첫 AI가 발생한 이후 곧바로 나주, 영암 등으로 확산되며 견잡을 수 없이 1년 내내 수백만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남지역 오리농가는 말로 형용키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한번 터졌다 하면 수만 마리씩 살처분 되고 이동제한, 입식제한에 걸리는 사태가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전남 농가들의 작년 평균 사육회전수는 1회전, 많아야 2회전에 그쳤고, 많은 농가가 사육을 접고 농사일 등에 날품을 팔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도지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AI관련한 정부의 SOP 등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남도, 농식품부, 국회 등 요소요소에 전달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는 무조건적인 이동제한으로 출하 일령을 넘겨 헛사료를 먹여도 42일령까지 밖에 보상기준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남지역 농가들은 'AI 제도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급박하게 조직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기준의 현실화와 입식가능시기 통보 등 많은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AI로 인한 사료폐기시 정부 보상안 제시,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자금 기준하향 조정, 정상입식지연 시 소득 안정자금 신설 등의 요구사항도 하나하나씩 결실을 이룰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만들어갔던 작년의 기억은 지회와 산업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기자 광주·전남도지회의 노력은 AI SOP 개

정 등으로 이어져 선별적 살처분으로의 정책변경에도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5년 계획은 어떠신지요.

마광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만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지역의 의견을 중앙으로 끌어올려 해결하는 상향식 의견수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로 인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회 결의안이 통과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전달되어 농식품부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등 전남지역의 움직임이 나름의 성과를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지탄을 받은 바닥 비닐 사용 의무화도 막아내고, 무차별적인 입식금지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아울러 오리 사육장에 LED를 접목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오리산업 접목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사육관리 매뉴얼 개선, 지역거점 AI 연구센터 건립,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재 맡은바 오리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직을 통해 전국 사업에도 많은 방점을 찍을 계획입니다.

AI로 인해 오리의무자조금 대의원회도 작년에는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서면 결의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실시, 소비활력을 더해 침체에 빠진 오리산업이 청양의 기운을 얻어 힘차게 뻗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현대축산뉴스 류필선 기자 [2015. 02. 24]